

&lt;서평&gt;

##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 트로비쉬(Trobisch)의 네스틀레 알란트 28판 사용 안내서<sup>1)</sup> 소개 -

민경식\*

### 1. 들어가는 글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학술용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소위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로 불리는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이다. 1898년 1판<sup>2)</sup>이 출판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거쳐 오늘날 28판<sup>3)</sup>에 이르고 있다.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sup>4)</sup>의 학문적 성과와 실용적 가치 및 기여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각국의 성서공회들이 자국어로 신약성서를 번역할 때 바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또는 이와 본문을 공유하는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sup>5)</sup>를 번역대본으로 삼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신약성서 원본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을 소위 “원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한성서공회에서도

\* Westfälische Wilhelms - Universität Münster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ksmin@yonsei.ac.kr.

- 1) David Trobisch,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본고에서는 『네스틀레 알란트 28판 사용 안내서』로 칭한다.
- 2) Eberhard Nestle, ed.,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scriptis collecto*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898).
- 3) B. Aland,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8.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4) 대한성서공회에서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한국어서문판 28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14)을 출판하였다. 이하 본고에서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로 약칭한다.
- 5) Barbara Aland, et al., *The Greek New Testament*, 5th ed.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2014.) 이 성서의 편집자 Barbara Aland,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Bruce M. Metzger 이렇게 다섯 명은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편집자들과 같으며, 본문 역시 같다. 다만 본문비평장치 등이 번역자들의 편이에 맞추어져 있다.

신약 번역의 대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한다.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이전 판들(특히 27판)에 실린 본문비평 장치에 비해 이번에 새로 나온 28판의 본문비평장치는 사용자 친화적이다. 이문들에 대한 정보를 더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고 편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책자(Handausgabe) 형태로 출판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는 최대한 많은 이문을 최소한의 공간에 효율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불가피하게도 이 책의 본문비평장치에 표기된 내용을 해독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를 출판 및 보급하는 독일성서공회는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서를 내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을 데이빗 트로비쉬(David Trobisch)가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책이 바로 여기서 소개하려는 David Trobisch,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이며, 책 제목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의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이 책을 집필한 트로비쉬는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잘 알려진 사본학자이자 본문비평학자이다. 일찍이 게르트 타이센(Gerd Theißen)의 지도를 받으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Dr. theol., 1988)와 교수자격(Dr. theol. habil., 1995)을 취득하였다. 신약학계에 널리 알려진 그의 교수자격 취득 논문은 신약성서의 최종편집에 대한 연구이며,<sup>7)</sup>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그린 컬렉션(The Green Collection)<sup>8)</sup>의 소장(director)으로 성서사본의 수집 및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6) 영어로도 번역되었다. David Trobisch, *A User's Guide to the Nestle-Aland 28 Greek New Testamen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7) 그의 교수자격 취득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David Trobisch, *Die Endredaktion des Neuen Testaments: Eine Untersuchung zur Entstehung der christlichen Bibel*, NTOA 31 (Freiburg, Schweiz: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1996). 몇 년 후 이 연구서는 다음과 같이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David Trobisch,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8) 세계 최대 규모의 사설 성서(사본)수집 기관이며, 약 4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2017년 워싱턴 D.C.에 약 4만 평방미터의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 2. 네스틀레 알란트 28판 사용 안내서

트로비쉬가 저술한 『네스틀레 알란트 28판 사용 안내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소위 “초보자”들을 위해 구성된 챕터이며, 2부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와 본문비평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3부는 소위 “전문가 집단”을 위해 구성되어 있다.

### 1부: 비평본의 구조와 의도 (초보자들을 위한 챕터)

이 책의 1부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에 대한 개요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어라든지 본문비평 또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 서문에도 이 비평본 역사와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비평본을 처음 접하거나 이것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단행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너무 오래되었다.<sup>9)</sup> 이러한 배경에서 트로비쉬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와 본문비평의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초보독자들의 입문을 돕고 있다.

우선 사본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의 전승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왜 이문이 생겨나는지,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의 본문비평장치에 어떤 이문들이 표시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어 사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파피루스 사본 가운데 하나(Ⲕ46)를 구체적인 실례로 들어서, 인쇄된 성서(NA28)와 고대사본(Ⲕ46)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가령 오늘날 인쇄된 성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띄어쓰기라든지 문장부호, 또 장절 표시나 문단 구분 등이 고대사본에는 없다. 또한 고대사본에 흔히 사용되던 노미나 사크라(nomina sacra)<sup>10)</sup>는 오늘날의 인쇄본에 나타나지 않는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9) Kurt Aland und Barbara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238-264. 이 단행본에 제시되는 사용설명서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6판에 대한 것으로, 28판의 사용에도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의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새로운 비평본의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10) 고대 신약성서 사본들에는 신성한 명칭들(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성령, 아버지 등)이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노미나 사크라(단수로는 노멘 사크룸, nomen sacrum)라 부른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C. H. Roberts,

도 차이가 나타난다. ¶46의 본문과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의 본문을 기계적으로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물론 ¶46은 해당 본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이다). 처음부터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편집자들이 구성하려고 하였던 본문은 모든 사본전승을 포괄하는 가설적 본문(소위 “시작본문”)이지,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본문이 아니다. 이어 코텍스 형태라든지,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등의 개념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에 트로비쉬는 친절하게도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위한 섹션도 마련하였다. 그리스어 알파벳 등에 대한 안내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 연습문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 먼저 그 형태를 안내하며,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설명한 후에는 연습문제를 통해서 장절 찾기, 병행구절 찾기 등을 직접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본적인 본문비평 기호(탈락, 삽입, 대치, 치환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또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부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한다. 초보자들을 위해 고안된 <1부>에서는 “그리스어 사본”을 주로 다루고 있다(부록의 다른 부분은 2부와 3부에서 다룬다). 그리스어 사본들 리스트에서 각 사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독하는지 설명한다.

이어서, 독법 및 이문을 평가하는 본문비평의 기초 지식을 소개한다. 어떤 구절(이문단락)에서 여러 가지 이문이 발견될 경우, 그 가운데 하나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에, 나머지 독법들은 본문비평장치에 실는 게 편집자들의 의도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문에 실고, 무엇을 비평장치에 실을 것인가? 물론 본문에 실린 독법은 소위 “시작본문”이 되고, 비평장치에 실린 이문들은 이 “시작본문”에서 파생된 이차적인 독법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트로비쉬는 독법들을 판단하는 두 가지 고전적 원칙을 설명한다

---

*Manuscripts, Society and Belief in Early Christian Egyp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26-48; D. Trobisch, *Die Endredaktion des neuen Testaments: Eine Untersuchung zur Entstehung der christlichen Bibel*, NTOA 31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6), 16-31.

(더 복잡한 최근의 이론에 대해서는 3부에서 다룬다). 짧은 독법이 긴 독법에 우선한다(lectio brevior potior)<sup>11)</sup>는 것과 어려운 독법이 쉬운 독법에 우선한다(lectio difficilior potior)는 원칙을 예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한다. 덧붙여 오래된 사본이 증거하는 독법이라고 오래된 독법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 2부: 사용연습과 학습보조 (성서학 전공학생들을 위한 챗터)

이 책의 2부는 어느 정도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한 핵심용어들을 설명하며, 이 비평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1부에서 기초 지식을 습득한 독자들 또는 이미 어느 정도 본문비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연습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점검하고, 심화된 지식을 갖추도록 돕는다.

트로비쉬는 우선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진다. 머리말에 대한 질문 두 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역사에 대한 질문 다섯 개, 본문에 대한 질문 여섯 개, 본문비평장치에 대한 질문 열일곱 개, 난외에 적힌 것들에 대한 질문 여덟 개, 부록에 대한 질문 여섯 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독자가 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러한 질문들이다. “왜 공동서신의 본문 가운데 일부가 변경되었는가?”, “공동서신의 본문이 얼마나 변경되었는가?”, “본문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외적판단기준’과 ‘내적판단기준’이란 무엇인가?”, “꺾쇠괄호([...])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것들이 공동서신 부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가?”, “‘적극적 비평장치’와 ‘소극적 비평장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틴어 번역본은 크게 어떻게 두 부류로 분류되는가?”, “유세비우스 캐논은 신약성서의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가?” 등의 질문이다. 자칫 놓치기 쉬운 사소한 지식에 대한 질문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서문에 대한 독자들의 지식을 점검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트로비쉬는 질문뿐 아니라 모범답안도 제공한다.

이어 그는 “다수본문”(M)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데, 통계적 개념으로서의 “다수본문”이 왜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루터성경이 여러 가지 다양한 판형으로 출판되어 나와도 결국 그 안에 실린 본문은 모두 같

11) 로이스(James R. Royse)는 짧은 독법이 긴 독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연구 및 제시하였다. James R. Royse,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Leiden: Brill, 2008). 원래는 1981년에 GTU의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학위논문으로 제출되었다.

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본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예시를 든다. 우리의 경우라면, 『개역개정판』 성경이 제단에서 사용하는 매우 큰 형태의 책으로도 출판되고, 또 회중용으로 출판되고, 또 작고 얇은 소책자 형태로도 출판되고, 찬송가와 합본된 형태로도 출판되고, 디지털 형태로도 출판되고, 주석이 달린 형태로도 출판되지만, 우리말 번역을 비교할 때 이 모든 성경을 “개역개정”이라는 하나의 표시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 출판되든 간에 그 안에 실린 본문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기 “다수본문”에 속하는 사본들은 대개 후대의 사본들로서 비잔틴 계열의 본문을 증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대의 사본들에 발견되는 이문들 역시 후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 발견되는 이문들 역시 고대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다수본문의 이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어 트로비쉬는 공동서신의 본문에 대해 언급한다.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은 이원화되어 있다. 공동서신의 본문과 본문비평장치는 공동서신을 제외한 부분(복음서, 행전, 바울서신, 계시록)의 본문과 본문비평장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책 전체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셈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약성서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sup>12)</sup> 작업이 공동서신 부분만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 대비평본』에 대한 구상은 이미 197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그 첫 결과물로 야고보서가 1997년에 출판되었다.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권이 출판된 2012년에는 ECM 프로젝트가 공동서신까지 완료되었으며, 그 연구결과가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에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ECM 프로젝트가 진척되면서 동시에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새로운 판에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서신 부분에서는 다수본문 기호( $\mathfrak{m}$ )가 사용되지 않는다. 편집자들의 생각에, “다수본문”이라는 용어보다는 비잔틴본문(Byz)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어 적극적 비평장치와 소극적 비평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sup>13)</sup> 본문의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을 제시하지 않는 소극적 비평장치의 경우에 어떤 사본들이 본문의 독법을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연습문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12) B. Aland,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IV: Die katholischen Briefe*, 2.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민경식,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214, 각주 6을 보라.

13) 이문을 지지하는 증거들과 본문으로 선택된 독법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극적 비평장치이며, 이문 증거들만을 제시하는 것이 소극적 비평장치이다.

또한 고대 번역본들을 본문비평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소위 “교부 인용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소개하며, “교부 인용문”의 문제와 한계를 함께 지적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유세비우스 캐논(복음서 대조표)을 소개하며, 부록 가운데 일부의 내용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라틴어 사본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본문비평장치에서 괄호 안에 제시된 사본<sup>14)</sup>의 온전한 독법을 제시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 3부: 학술적 비평본 (전문가들을 위한 챕터)

3부는 전문가들을 위한 챕터이다. 이미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새로 나온 28판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준다. 본문이 34군데 바뀐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트로비쉬는 본문의 변경 이외에도 28판의 새로운 점을 열한 가지 소개하는데, 이것들은 전문가들이라도 잘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그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을 『소비평본』(*Editio Minor*)이라고 부른다. 이 비평본이 『대비평본』(ECM)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27판과 28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트로비쉬는 지적한다. 물론 공동서신 부분에서만 대비평본의 연구결과가 소비평본에 반영되었다. 앞으로 대비평본 프로젝트가 진척되면서 소비평본도 지속적으로 변경될 것이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변화는, 27판의 “1등급에 속하는 늘 인용되는 증거들”과 “2등급에 속하는 늘 인용되는 증거들”의 구분이 28판에서는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는 고대 번역본에 대해서 언급한다. 라틴어 번역본, 시리아어 번역본, 콥트어 번역본 등 고대 번역본에 대한 연구도 독립적인 연구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 왔고, 28판이 최근의 고대 번역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시리아어 성서의 예를 들면, 쿠레톤 역본(*Syrus Curetonianus*)과 페시타 역본(*Peschitta*)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새로운 비평본이 출판되었는데, 28판에서는 이 새로운 비평본들이 고대 번역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콥트어 번역본의 명명법이 어떻

---

14) 괄호 안에 제시된 사본은 해당 독법과 비슷할 뿐이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비평장치에서는 괄호 안에 제시된 사본의 독법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사본들의 정확한 독법은 부록 II(*Variae Lectiones Minores*)에서 제시된다.

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한다.

네 번째로 언급하는 사항은 “추측독법”에 대한 것인데, 27판과는 달리 28판에서는 “추측독법”을 비평장치에 제시하지 않았다. 문헌자료 입증이 불가능한 독법을 추측하여 비평장치에 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편집자들이 여겼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신약 각 책에 붙은 제목과 관련되는데, 28판에서는 책의 끝에 붙은 제목(subscriptio)을 비평장치에 실지 않는다.

이 밖에도 본문비평장치에서 사용되는 약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공동서신에서 본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부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설명한다.

28판의 변화에 이어 트로비쉬는 또한 이 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가 지적하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한계는 많은 정보를 제한된 지면에 실어야 하는 소책자(Handausgabe)의 태생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우선 ECM을 잘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는 로마서 파피루스 46번(ꝑ46)의 15장 31절 본문을 예시로 들면서, 늘 인용되는 증거인 ꝑ46의 독법이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 책의 오류는 아니다.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는 원래부터 모든 이문이 아니라 특정한 구절의 이문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트로비쉬가 제기하는 두 번째 한계는 사본의 선택 문제이다. 어떤 사본을 “늘 인용하는 증거”로 선택할 것인가? 왜 특정 사본들이 “늘 인용하는 증거”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서문에 제시되지만, 제한적이다.

또한 각 이문단락에서 어떤 근거로 특정 독법을 본문으로 선택하고 다른 독법(들)을 비평장치에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물론 이것은 이 책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특정 단락에서 특정 독법이 본문으로 선택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메츠거의 본문비평 주석서<sup>15)</sup>를 보아야 한다.

또한 이문단락(Textstellen)의 선택도 다소 의문시 된다. 당시 세 권의 비평본을 비교하여 본문을 결정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1판(1898)에서는 비평본들끼리 서로 차이점을 보이는 구절들이 이문단락으로 선택되었는데, 이제 사본에 대한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문단락도 급격하게 확장되었지만, 왜 이 이문단락은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키고, 저 이문단락은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가 사본의 파손된 부분(lacuna)을 면밀하고

15)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세세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트로비쉬는 이 문제를 146의 로마서 16장 2-4절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따라서 많이 훼손된 사본의 경우에 독자는 특별히 소극적 비평장치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트로비쉬는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본문 구성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둘 다 계보적 방법론인데, 첫째는 지엽계보적방법(lokal-genealogische Methode, 이하 IgM)이고, 둘째는 CBGM(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e, Kohärenzmethode)이다.

IgM은 27판까지의 본문결정에 사용된 방법론으로 28판의 공동서신 부분(또는 ECM)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방법론은 특정 이문단락에서 독법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보도(系譜圖)를 만듦으로써 사본의 질을 평가한다. 많은 이문단락들에서 “시작본문”을 많이 지지하는 사본일수록 우수한 사본으로 취급되며, 편집자들은 본문판단이 어려운 이문단락에서 이러한 우수한 사본들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이 진화하여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착된 것이 CBGM이다. 이 방법론이 바로 ECM과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의 본문 판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다. 이 이론은 본문의 전승과정 가운데 사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졌고, 수많은 사본이 이미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본들의 계보도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CBGM은 결코 사본들의 계보도를 그리려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모든 사본을 해독/분석하여 수집되고 정리된 방대한 자료를 적절하게 평가함으로써 개별 사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마지막에는 부록이 붙어있다. 이 부분은 성서주석 수업 등에서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한다.

### 3. 나가는 글

트로비쉬의 책은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에 대한 사용 안내서이다.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의 서문(Einführung / Introduction)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안내한다. 또한 중간 중간에 수시로 나오는 연습문제를 통해서 독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이로써 부족한 부분을 수시로 파악하고 스스로 보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은 1부에서 3부까지 수준별로 기술되어 있어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독자가 되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막 성서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은 1부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간다면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학부과정의 신약학 전공 기초수업 필독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책은 원어로 성서를 읽고 본문을 판단해야 하는 석/박사 과정생들뿐 아니라 새로 나온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성서』 28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도 각 수준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성서에 관심이 있는 독자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주제어>(Keywords)

그리스어 신약성서, 네스틀레, 알란트, NTG 28판, 트로비쉬, 본문비평.

Greek New Testament, Nestle, Aland, NTG 28. edition, Trobisch, Textual Criticism.

(투고 일자: 2016년 1월 8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메츠거,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 민경식,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36 (2015), 187-205.
- Aland, B.,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8.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Aland, B.,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IV: Die katholischen Briefe*, 2. revid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 Aland, K. und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Nestle, E., ed.,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scriptis collecto*,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898.
- Roberts, C. H., *Manuscripts, Society and Belief in Early Christian Egyp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Royse, J. R.,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Leiden: Brill, 2008.
- Trobisch, D., *Die Endredaktion des Neuen Testaments: Eine Untersuchung zur Entstehung der christlichen Bibel*, NTOA 31, Freiburg, Schweiz: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1996;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Trobisch, D.,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A User's Guide to the Nestle-Aland 28 Greek New Testamen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Abstract>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A Review on Trobisch's Guide to the Nestle-Aland 28**  
**Greek New Testament**

Kyoung Shik Min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David Trobisch's book entitled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This volume is also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A User's Guide to the Nestle-Aland 28 Greek New Testamen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in the same year.

This book is structured in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level of knowledge. The first part is for beginners who have never been familiar with previous editions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This book will guide them to the world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and give them some critical ideas about issue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The second part is for (graduate) students who have some knowledge and special interest in biblical literature. Through exercises, it helps readers check their knowledge, and leads them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28<sup>th</sup> edition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Finally, it helps them to apply the information of the edition to biblical studies.

The third part is for experts in the academic field, namely biblical teachers, professors, and preachers. It gives not only an overview of changes in the 28<sup>th</sup> edition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but also an overview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is edition.

Readers who have interest in biblical literature and want to read the New Testament in Greek, and who have to interpret the Greek New Testament professionally will find this book useful.